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구세주는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귀의 세상으로 변하여졌으므로 참 진리의 학문과 종교가 하늘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마귀의 세상에는 참 학문과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신다.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진리란 변치 않는 것이므로 곧 영생을 말한다. 고로 진정한 종교는 궁극적으로 영생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쯤에서 요한복음 5장 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연구)하거니와...''라는 구절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영생 얻은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다.

믿는 자와 믿음은 다르다

단지 여기에서는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론을 살펴봄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다(요한복음 6:47)'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 받는 자가 누리는 영생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논리다.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가진 믿음이 있다.

가령 내가 예수를 믿고 병 고침을 받는다면 내가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면, 이러한 믿음은 나(我)라는 의식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것으로서 곧 인간(죄인)의 믿음에 해당된다.

박태선 기자

당된다. 이렇게 나라는 의식 곧 인간 마음속에서 조성된 믿음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기도 하지 만 심지어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2천 년 동안 천만 명이면 천만 명, 억천만 명이면 억천만 명이 모두 죽었고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지 않았던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과 인간에 속한 믿음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에 속한 믿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자에게 특(得)이 돼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생의 신인 고로 가지고 있는 말천이라곤 영생의 영밖에 없는 고로 죽을 인생들에게 영생의 영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 듣는 경이로운 말이겠지만 마귀한테 점령당한 보통 하나님은 영생의 영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담 이후 6천 년이 차는 말세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승리가 하나님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 영생의 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생의 영을 죽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없었다가 말세 때에 비로소 믿음이 나온다'고 고쳐야 온전한 말씀이 된다.*

웃으면서 전도합시다

구원방주 높이 뗏으니 일가친척 손목잡고 빨리 오시라

2. 감로이슬은 우주변화의 실체

인간을 두고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가 하면 '소우주(小宇宙)'라고도 한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 보면 '이 세상 만물 속에도 영이 깃들 어 있다'는 의미가 되며 '만물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면서 영적 존재인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영이 최고로 존엄한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또 인간을 소우주라 함은 인간 속에 대우주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가하면 소우주이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두고 성경 신명기(14:1)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라' 했고,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또한 육신을 가진 인간을 보고 신이라고 하는 정의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민수기(27:16)에 '여호와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는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 신이요 영적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정체성을 밝혀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휴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인간관이다. 더구나 그들이 구세주로 믿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하여 신

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신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신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하나는 생명의 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물의 신 마귀신이 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성품 속에는 생명의 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 곧 양심의 마음자리에 있는가 하면, 사물의 신 마귀의 속성이 욕심의 마음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신 양심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싶어 하지만 사물의 신 마귀종이 되는 죄와 욕심으로 인해 욕심의 생명이 되는 피가 썩어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근원이 되는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인 욕심의 마음을 소멸하고 사망을 이겨주는 구세주를 기다려 왔다. 그 구세주가 오시면 증표가 되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과 권세와 창조력과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감로수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이슬성신의 형태와 성질과 능력에 대하여 성경과 불경과 격암 유록 등의 예언서에 자세히 설명한 것을 앞에서 소개하였다.

따라서 구세주 되시는 생미륵불 정도령께서 감로수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오시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은 인간이



이문수기 두 번째회,

교회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진리 말씀

맨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차차 깨닫게 돼

동생들 뒤처다꺼리와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교회에 다녔다. 당시 박태선 장로님은 불의 사자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전도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남산집회에 참석하여 박태선 장로님에게서 불성신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경험을 맛보았다. 너무 너무 좋았지만 박장로님께서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목사들이 전도관에 못 가게 하면서 서서히 전도관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전도관에 나가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는 사람이 전도관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혼자 들어오라는 말 때문이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가정을 버리고 전도관 신앙촌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 일찍 풍을 맞게 되어 연약하고 어린 나였지만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나는 26살에 결혼을 하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처녀 총각들이 연애결혼이 아니라 양가 소개에 의한 결혼처럼 나도 그랬다. 남편은 평안도 사람으로서 월남하여 서울에서 살면서 홀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고모를 시어머니처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 남편의 직업은 전기공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남편에게는 풍이 일찍 찾아왔다. 반신불수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집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지내게 되었다. 병수발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조그마한 일에 신경질을 부리고, 나중에는 여린애처럼 되어서 풍 오줌을 다 받아내야 한다. 이런 병수발을 십오 년가량 하다보니 가끔은 내 신세가 한심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해서 눈물도 흘리고 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신세 한탄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 대신 가정이 되어 나는 이를 악물고 여러 가지 일들을



1지역회장인 박경옥 권사(오른쪽 첫째)가 식구들과 대부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찍었다

하면서 외아들을 키웠다. 어느 정도 아들이 장성하여 대학교에도 들어가고 번듯한 직업도 갖게 되면서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니 그 다음은 종교 쪽으로 관심을 쏟게 되었다.

전도관과 인연을 끊고 순복음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고 있을 90년대 초반쯤이었다. 동네 친구가 살기 어려워져 도와주게 되는 계기로 말미암아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의 인도로 대성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대성교회는 박경직 목사가 말씀을 잘하고 은혜가 넘달라 교인이 많았다.

나는 대성교회 다닐 때 특별한 은혜 체험은 없었다. 다만 구역 인도예배를 할 때 말주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 인도를 시키면 희한하게 그렇게 말주변이 없다가도 기도만 시작하면 거침없이 잘 나왔다. 나라는 것은 말주변이 없어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청산유수로 하계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았다.

대성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 한 5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영등포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야간청소를 하고 있었다.

한때 청소감독으로 있었던 차욱천 장로님의 전화번호가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안부전화를 걸고 싶어 전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에 또 전화를 걸었는데 한번 역곡역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무턱대고 역곡역으로 찾아가다.

차 장로님은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따라서 어디론가 가자고 하였다. 막무가내로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고 따라간 곳이 바로 승리제단이었다. 그때가 1998년 2월 28일이었다. 차 장로님은 나를 지히춤 예배실로 인도하였고 구세주 조희성님의 말씀을 비디오로 처음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 구세주께서는 1차 욕중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녹화된 비디오로 예배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비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날 오라고 해서 또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가 걸려왔다. 야간청소를 한 다음이라 피곤에 절었지만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그 말에 또 제단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1일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한 번 더 받으라고 해서 21일 교육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항상 피곤에 절었던 터라 교육을 받으면서도 멍한 상태였고 또 뭐가 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더구나 이긴자라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가더라도 계속해서 나오고 인내로써 참다보면 이해가 가게 된다는 차 장로님의 말씀에 힘입어 꾸준하게 나왔다.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던 진리 말씀이 3년 정도 되자 들리기 시작해

그러다가 대성교회에 다녔던 교인들에게 승리제단에 다닌다고 말하니 대성교회 교인들이 돈을 주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회유를 하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승리제단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리를 갈구하는 나의 마음은 이미 활시위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이해가 가지 않던 이긴자의 말씀들이 2000년도가 되니 희한하게도 하나 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세주께서 욕중에 계시면서도 영적으로 진역을 부여주셔서 그런 것이었다.

사실 구세주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제단 간부들이 하는 대로 지켜보면서 어서 빨리 출옥하시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를 2000년 8월에 만나볼 수 있었다.*

박경옥 권사 / 본부제단

감로의 도 ⑪ 제3장. 감로이슬의 능력



1993년 4월 한국일보 강당에서 강연회를 할 때 나타난 감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지 않는 만물의 영장체로 만들면 우주만물도 더불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체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시는 감로수 이슬성신은 바로 인간과 우주만물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세계로 변화시키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예언을 성경 고린도전서(15:53~54)에는 "이 썩을 것이 불

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하였다.

이러한 우주변화의 역사를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역사라 하니 원시반본이란 현재 죽음의 세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원래 죽음 없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함이니 현재 음암태극의 세

상이 변하여 무극 중성의 하나님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천국과 극락의 세상으로 회복하는 인류구원의 역사이다. 즉 그 세계는 암수의 성질이 없어지고 남녀의 신체구조가 변하여 중성체가 되어버리니 시집·장가 값이 없어지고 자식을 낳는 일도 없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 기운이 춥고 더움이 없어지며 여름과 겨울도 없어지니 사시 장춘 봄 날씨로서 모든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후조건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남녀가 결혼을 꺼리고 자녀를 낳기를 꺼리는 것은 서서히 사망의 기운이 짙어 하나님 영생의 세계로 변화되고 있는 징조이며,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기후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역시 격암유록 격암가사 편에 예언한 내용과 같이 인간 속의 마귀성품이 물러가고 악화위선(惡化爲善) 되어가는 과정의 역사이다.

불경 열반경에도 역시 늙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감로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군데 설명하고 있으나 오늘날 불교계에서 감로의 도를 설명하고 감로의 능력을 행하는 생미륵불이 나온 곳은 없다. 이미 그들이 기다리는 열반경의 주인공이 판박에서 출현하여 사망을 이기고 감로의 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가까이 감로의 도(道) 아래로 모여와 진실로 그들이 추구하는

열반의 세상, 지상극락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실로 감로의 도는 모든 불교인들에게 전하는 진실한 구원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성경에도 '이슬이 내리면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사26:19)'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이슬을 받으면 죽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감로라야 마귀를 이기게 한다

진정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사랑의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는 것은 불교에서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라 하고 성경 야고보서(1:15)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고로 욕심 자체가 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을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을 한다.'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다.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은 죄의 뿌리를 버려라는 말이다. 수박 겉을 훑으면 맛이 없다. 수박을 쪼개 가지고 속에 있는 시냇건 것을 먹어야 달콤하고 맛이 난다. 감로수 이슬성신을 먹게 하는 감로의 도라야 모든 욕심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나를 버리고 영생하게 할 수 있다.*

서복목 승사 / 본부제단